

2022 OPEN! VII.

끝이 보이지 않는 문제, 예수를 만나 끝이나다.

인간의 궁극적 갈망은 '자유'이다. 자유는 모든 구속과 묶임으로부터 해방된 상태이다. 하나님은 원래 창조하신 사람의 원형이 온전하게 회복된 상태를 말한다. 부족함이 없는 상태이며, 갈등과 근심이 없는 상태이다.

* 종교

인생은 무엇일까? 문제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이다. 문제는 갈등의 뿌리이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 '해탈'을 통해 다른 경지로 가기를 원한다. 그 경지가 '열반'이다. 열반은 성불을 한 상태이다. 완전히 벗어난 상태이다. 모든 종교의 궁극적 목표는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가장 명확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모든 문제의 '끝'이 있다는 것이다. 모든 문제의 뿌리는 '죄'로부터 시작된다. 아담의 죄는 그래서 '원죄'이다. 끝이 없다. 죄의 종이다. 다른 종이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괴롭다. 누군가 이 갈등의 끝을 내야 한다. 해결자, 종결자가 있어야 한다.

예수님이 갈등의 종결자, 해결자가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갈등의 끝이다. 새 삶이 시작되는 것이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다. 출애굽은 바로 그와 같은 사건이다.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옛 자아로부터 완전히 나오는 것이다. 무려 400년이 넘는 끝이 보이지 않았던 갈등이 종결되는 순간이다. 그래서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이 끝이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다. 가문으로부터 오는 저주, 이미 내 손을 떠나 버릴 정도로 얽힌 문제, 끝이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 유대인 바울이다. 유대인으로 대변되는 바울의 갈망은 구약 말씀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었다. 그들은 말씀을 알고 있었다. 메시아가 오셔야 끝이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 유대인의 마음안에 있는 갈등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다.

1. 눈이 가려진 유대인

[요한복음 10:22-24] 22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23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24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24 The Jews gathered around him, saying, "How long will you keep us in suspense? If you are the Christ, tell us plainly."

메시아 예수를 보았음에도 그들의 의심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 놀라운 말씀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의혹' 때문이다. 그들 안에 있는 의심을 보라. 예수님을 보며 그들 안에 있었던 내면의 갈등을 보라. 이것이 예수를 핍박하게 되었던 가장 큰 이유이다. 바울이 스테반을 죽이고,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이유이다.

2. 종결자 - 예수 그리스도

(1) 사탄도 아는 너무나 분명한 종결자,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14-15] 14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성경에서 보여진 첫 예언이다 (15절). 사탄은 자신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다. 자신의 멸망을 알고 있다.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사탄의 모든 목적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막는 것이다.

(2) 아브라함의 씨

[창세기 22:16-18] 16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갈라디아서 3:16]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사탄은 창세기 3장의 예언을 막으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이 파괴되는 예언이기 때문이다. 사탄의 지속된 근심은 바로 자신이 파괴되는 예언이다. 오늘 바울 안에 있었던, 유대인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는가? 갈라디아서 3:16절의 발견이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인가? 그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사탄의 머리를 밟게 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안에 있었던 끝이 없었던 갈등이 해결된 것이다. 예수를 만나야 끝이 나는 것이다.

3. 거절의 비밀 - 마지막 때의 그림

[마태복음 21:42-43] 42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43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 42절 - 건축자의 버린 돌은 예수님을 말한다. 이스라엘이 왕을 거절했고, 그 왕은 다른 나라의 영접을 받았다.

* 43절 -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겼다.

유대인들에게 모퉁이돌(corner-stone)은 건축에 가장 중요한 돌이다. 이 돌을 시작으로 벽이 쌓이고, 이 돌 위에 그 집의 용도와 건축자의 이름이 쓰여지기 때문이다. 오늘 이스라엘의 거절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심)은 이방 나라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기회로 변경되었다. 거절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서, 정작 메시아가 나타나니 알아보지 못했다.

왜 그들이 예수를 거절했는가? 유대인들의 갈망은 이 땅의 문제 (이스라엘의 구원)를 해결하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다. 구약 선지서의 예언들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의 갈망도 자신의 민족을 그 당시 모든 억압과 핍박으로부터 해결할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다. '바울'(유대인)로 대변되는 유대인들의 끝없는 갈등은, 예수를 갈등의 종결자와 해결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들의 교만이다.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있다.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열매가 이방인에게 열리게 된다.

[마태복음 28:18-20] 18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셔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라고 명하셨다. 이스라엘의 거절로 이 권세는 온 열방의 권세로 확장되었고, 온 열방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 안에 있을 수 있게 되었다.

(1) 이스라엘이 마지막

[베드로전서 2:9]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9 But ye are a chosen generation, a royal priesthood, an holy nation, a peculiar people; that ye should shew forth the praises of him who hath called you out of darkness into his marvellous light;

[마태복음 24:14]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다. 그분의 다시 오실 때가 세상의 마지막이다. 그때가 바로 온 열방에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때이다. 천국 복음이 온 열방에 전해져야 세상의 끝이 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게 이 유업을 주셨고, 사탄은 이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최선을 다해 막아서는 것이다.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 요한계시록 12장)

(2) 이삭과 이스마엘의 하나됨

모든 민족의 마지막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구체적으로 중동 땅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슬람도 열매가 나타난다. 중동 땅의 궁극적 갈등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이다. 이 끝이 없는 갈등의 해결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삭도 아닌, 이스마엘도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앞에 서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복음을 통해 모든 갈등의 종결자로 세우셨다. 이제 그 확신으로 나아가야 한다. 나를 통해 모든 끝이 없었던 가정과, 사회와, 공동체와, 세상의 문제가 종결되어야 한다. 이 사명으로 일어나는 조이풀이 되자!